

## 웹기반 실시간 성과평가 제도 도입

우리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웹기반을 바탕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해 교수들의 반발로 오영교 총장이 개인별성과평가계약을 철회하고, 교수실적에 관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발표하겠다고 한 것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또한 이번 제도는 실시간(Real Time) 성과평가제도로써 교직원들을 평가하는 유비쿼터스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영평가팀(팀장=김승용·경영학)은 실적이 우수한 단과대학에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자율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다음 해 예산 평가에도 실적이 반영되는 등 철저한 차등보상제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교원의 경우 개인 실적과 단과대학 평가를 반영해 개인별 최대 700만원(논문 등 개별 포상금을 합치면 1,300만원)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교원성과평가제도의 경우 지난 8월 교수들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연구영역부분에 대해 배점제한을 없앤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연구부분은 단과대학 경영평가

의 공통지표로서 연구분야 외에도 교육,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기타 항목을 선정해 점수로 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등 총 4개 계열로 나눠 평가한다.

교원에 대한 보상은 개인실적(성과급의 60%)과 대학평가(40%)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도록 바뀌었다.

## 국내대학 가운데 최초 도입 우수 단과대 최대 2억원 지원 개인별 최대 1,300만원 성과급

△강의평가(최대 200점) △국내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1편 120점)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SCI 1편당 300점, SCIE 1편당 180점) △교육 및 연구역량강화(최대 30점) △학사행정참여도(최대 15점) 등으로 세분화해 상위 20%에는 400만원, 중간 50%에는 250만원, 하위 30%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총점이 1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기에 1번 실시되던 강의 평가를 올해 2학기에는 2번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3회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과대학 평가실적에 따라라도 개인의 성과급이 나뉜다. 상위 20%에 속하는 단과대학 교원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된다. 개인이 이미 제출한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총장 직속 및 경영부총장 산하 부서 △각 대학(원) 학사운영실 △학사부총장 산하 기타부서 등으로 나뉘어 평가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업무처리 결과를 즉시 평가해 모든 단위조직과 개인의 성적을 매기도록 돼 있다. 따라서 총장 및 행정직원들이 학교 업무 진행 상황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학생들도 민원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측은 이번 제도를 통해 2011년까지 '3개 분야 세계 최고 수준, 5개 분야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영평가팀 신하균 과장은 "지난 번 교수들이 요구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대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지표를 통해 학교 단위 조직 및 구성원의 노력을 학교 전체의 비전과 목표에 합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열린 마음으로" ... 지난 달 31일 '재학생과 총장과의 대화' 사록원 3층에서 약 두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는 학생들과의 대면접촉을 통해 학내현안에 대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오영교 총장의 의지에 따라 열린 것으로 약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관련기사 5면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 총학선거, 두개 팀 입후보

기호 1번 고기훈·이순양 기호 2번 현성은·신동욱

총여·총대·졸준위도 입후보 ... 20일부터 3일간 투표

제40대 총학생회 선거에 두 팀이 출마한 가운데 지난 8일부터 중앙 기구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후보별로 공약을 담은 홍보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유세를 하고 있고 오늘(12일)부터 공동정책자료집이 배포될 예정이다. 투표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야간강좌의 경우 △20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21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22일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투표를 한다.

모토는 'Talk Play Love'이며 이는 소통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공약을 이행해 신뢰받고 사랑받는 학생회가 되자는 것을 말한다.

21대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는 단일 후보가 등록됐다. 위하라(조소2)·김지현(영문3)조는 △생리 곤경제 시행 추진 △여성만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 △여학생 수면실, 휴게실 증설 및 개보수 △후문 학교길 가로등 설치 △메이 크업, 스타일링, 베이킹 등 강연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출마했다"고 선거에 나선 이유를 말했다.

단과대의 선거는 다음과 같다. 투표소는 각 단과대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고 투표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각 단위별로 출마한 후보자는 △문과대=최재희(철학4) △이과대=김철(통계3), 남해미(화학2) △법과대=백인혁(법학2), 이윤문(법학1) △사과대 기호 1번=김현명(신방2), 김해정(신방3) 기호 2번=이은지(사회3) 김수현(경제2) △경영대=최원석(국제통상3) △생자대=라인호(생물3), 심신희(식품자원경제3) △공과대=이형근(생화공3), 연성모(사회환경시스템공3) △정산대=조성오(정보통신공3), 안재복(정보통신공2) △사법대=김정태(국교3), 고승진(교육2)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 검찰 "국고지원, 특혜 아니다"

### 허위사실 유포 언론에 책임 물어야

검찰이 지난달 30일 신장아 씨와 변양권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우리학교에 대한 특혜와 지원사업 등 국고지원이 특혜성이 아니었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온 왜곡 보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부지검 구분민 차장 검사는 수사발표에서 우리학교에 대한 특혜성 예산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가로 받았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며 "단지 2005년부터 동국대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국가 예산이 많이 지원된 것"이라고 밝혀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구 검사는 또, 홍기삼 전 총장의 관련혐의에 대해서도 "변 전 실장이 홍 전 총장에게 혐의 비슷한 항의성 전화를 했다"며 "그런 과정을 보면 홍 전 총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학교 발전과 재정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신 씨를 채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입건대상이 아님을 자인했다.

이는 검찰이 두차례에 걸쳐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학교관

계자들에게 대한 광범위한 소환조사를 했음에도 사실상 혐의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관계자들은 "뒤늦게나마 학교와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어 다행"이라면서도 "그동안 언론에 의해 우리학교에 대한 국고 지원사업에 특혜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왜곡보도를 일삼은 언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언론의 왜곡보도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강도 높은 명예회복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본사사령**

◇ 수습 기자

- ▲ 배종성(문과대 철학1)
- ▲ 이정훈(사과대1)

- 이상 11월 12일자

## 기계공학과, 국책사업 27억 지원받아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2007년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에 우리학교 기계공학과가 선정돼 산학협력단(단장=박형무·전자공학)과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25일 계약을 체결했다. 3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총 27억 6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우리학교는 차세대연료 생산·이용을 위한 복합 기술개발 사업의 세부사업인 '최적 NGH 저장 및 재가스와 기술 개발'을 수행한다.

이는 현재 액체 상태로 운반, 저장하는 천연가스(LNG)를 고체상태인 하이드레이트(NGH)로 만들어 저장, 운반 및 재가스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이드레이

트의 수송, 저장 및 재가스와 과정상의 분해 특성 및 자기보존 효과 등을 실험적으로 규명함으로써 NGH의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연구 성과물이 장차 기존의 LNG 방식을 대신하는 획기적인 천연가스 운송 시스템 개발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에는 과제수행책임자인 송명호(기계공학)교수를 포함해, 성관재, 광문규, 방세운, 고봉환 교수 등 기계공학과 교수 5명과 대학원생, 학부연구생 15명이 참여한 다. 이번 사업 선정은 우리학교가 에너지환경 분야의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기초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 특강' 참가자 모집 홍석천 '젠더커뮤니케이션' 강연회도 개최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 특강이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개최된다. 특강 내용은 미국 대사관 대사 등 국제기구 관련자들의 초청 강연회와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이다. 또한 식사예절과 와인매너 등 실무적인 교육도 이뤄진다.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이신열·가정교육)는 오는 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으며 자기소개서

와 면접을 통해 10명의 여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특강은 우리학교와 중앙대, 숭실대, 연세대, 한양대의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공동으로 기획했다.

한편 방송인 홍석천 씨의 '젠더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강연회가 오는 14일 3시에 화림관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사회적 성적 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 학교 홈페이지 새롭게 개편

우리학교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됐다. 정보관리실(실장=김양우·정보통신공학)에 따르면 전체 컨셉을 'World Wide Dongguk'으로 하여 우리학교의 세 가지 인재상인 'Creative Thinker', 'Young Challenger', 'Ethical & global Leader'를 표현했다고 한다.

또한 이번학기에도 새롭게 제

작된 언론사 통합 미디어포털 사이트인 'DONGGUK·IN'(www.donggukin.org)의 콘텐츠를 학교 홈페이지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DONGGUK·IN'의 콘텐츠를 학교홈페이지 접속만으로도 손쉽게 접할 수 있어 구성원들에게 학교의 소식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게 됐다.

## 일본학연, 15일,16일 한중일 심포지엄

우리학교 일본학연구소와 국제화추진단이 주관하고 중국 사회과학원과 일본 큐슈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아시아 문화정체성 확립을 통한 한중일 협력방안 연구> 국제 심포지엄이 15일, 16일 양일간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문화, 의료 생명윤리, 기후변화 등의 주제를 놓고 각국의 석학들이 나서 주제발표를 하게된다.

숨은 동국 찾기

비에 젖은 동국의 오후

비에 젖은 가을은 벌써 차가운 바람을 재촉한다. 신장아의 학위 위조 파문으로 동국의 마음 역시 차갑다. 새로운 총학생활을 기대하며, 앞으로 변화할 동국의 모습을 그려본다.

육성우 객원기자  
y7s4w7d@dongguk.edu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모집인원 00명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원서접수 학기 중 모집  
원서제출 SC제일은행 옆 본관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http://www.dgupress.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www.dgupress.com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TEL: 02) 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혜택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중 무료 수강,  
인문 교육기금 무료 수강

\* 보호자 월 의료보험료 5만원이하인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감면

동약은 선거중

기호 1번 "꼭 필요한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동국을 바꾸는 새로운 힘"

3면 선거특집면  
- 총학생회 입후보자 인터뷰

# 학과 학생회비운영 개선시급

## 결산 비공개 · 주먹구구식 감사 진행

### 투명한 감사 통해 학생신뢰 회복 필요

과 학생회비의 운영에 있어 공개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과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학년 신입생들은 입학 후 각 학과별 자율적인 납부방식 아래 현금 지출 혹은 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과 학생회비를 내고 있다. 과 학생회비는 4년의 학과 생활동안 보통 신입생 때 1회 걷고 있으며, 모인 금액은 한 해 그 학과의 MT, 체육대회 등 학과 활동비로 쓰인다.

그러나 몇몇 학과들이 각 학과의 활동비로 충당되는 과 학생회비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결산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영어영문학과와 화학과 및 게임멀티미디어 공학과와 의 경우 과 학생회비의 결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심지어 어느 단과대의 경우, 각 학과의 학생회비를 단과 학생회비와 함께 회계처리하고 관리함으로써 독립적인 회계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과 학생회비 내역을 공개하는 학과들은 주로 개강 · 종강 총회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에게 밝히기도 하며, 그 밖에 학과 게시판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학과들도 있다.

그러나 공개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결산 내용을 말로 전하는 총회 발표와 벽보공개는 'A활동에는 얼마의 돈을 썼고 B활동에는 얼마의 돈을 썼다' 식의 압축적인 내용으로 그에 대한 사실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발표자가 학과 선배가 대부분인 경우라 1-2학년 학생들이 세부사항을 문의하거나 의의를 제기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다.

그렇다면 공개되는 과 학생회비

의 회계처리 및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과 학생회비의 감사는 단과대의 경우 대의원회 학생들 또는 학생회장 하고 있으며, 각 학년 과대표들이 모여 감사를 실시하는 학과도 있다. 그러나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를 공개 할때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절차의 투명성 여부에 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또 감사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도 문제다. 회계장리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과 학생회장 또는 대의원이 감사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기고 있거나 시행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감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학과도 있다.

또한 학과 집행부들만의 주먹구구식 합의에 의한 감사로, 감사의 본래 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70%에서 90% 이상까지의 납부율을 보이는 과 학생회비는 결코 작은 액수의 돈이 아니다. 큰 금액의 역수를 운용하면서 그 결산을 공개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도 학생들의 의심과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공개를 하고 있다는 학과 의 경우라도 감사를 거치지 않는 공개에 대해서 학생들의 믿음은 온전히 기대하기란 어렵다. 학생회비 의 액수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투명한 결산내역 공개 및 감사를 통해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회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 “영어실력 진단 받아보세요”

## English Clinic 이용 저조 ... 개설효과 발휘 못해

지난해 11월 개소한 우리학교 English Clinic이 학생들의 이용률 저조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에 따르면 전체 이용 가능한 시간중 학생들의 이용률은 40%이며 9월 둘째 주부터 현재까지는 중간고사기간이 포함돼 25%의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English Clinic은 원어민 교수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상담분야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클리닉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클리닉을 처음 이용하는 학생들은 English Clinic을 직접 방문해 클리닉 시간을 예약하고 두 번째 부터는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하다. 2008년부터는 학생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인터넷 예약도 시행할 계획이다. 클리닉은 한 학기 최대 5회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30분이다.

클리닉 내용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나 주제로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진단하고 영어 학습 방향에 대한 원어민 교수의 지도를 이용해 영어실력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원어민 교수 투스리라는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감 부족이다. 클리닉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감 개

선에 도움을 주고 개인 수준에 따라 영어 학습 방향을 제시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English Clinic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학생도 경영대, 사회과학대, 영문학부 3 · 4학년학생으로 특정 단과대의 학년이 편중되어있다. 외국어교육센터 성부경 직원은 “클리닉을 이력서, 과제 지도의 한 정적인 부분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또 1, 2학년들 학생들의 이용률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보아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프로그램을 찾아 이용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English Clinic의 존재 여부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홍보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반영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English Clinic을 이용하고 있는 이미현(행정4)학생은 “30분의 클리닉 시간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꾸릴 수 있는 점이 좋다. 한 교수님이 집적으로 학생들의 클리닉을 맡아 주면 학생의 문제점과 수준을 파악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lmsionaral@dongguk.edu

# ‘SCI작성 노하우’ 22일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

교수법 워크샵 ‘SCI 과학논문 작성 및 투고와 Presentation know-how’ 가 오는 22일 90주년 기념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교수학습개발센터(센터장=이중권 · 수학교육의 주최로 교수 및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국제저명 학술 논문(SCI) 작성 및 투고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샵은 연세대학교 김동호(화학) 교수가 영어 과학논문 작성법, 논문투고 및 후속조치, Oral & poster presentation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교수 및 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열리며 이날 20일까지 학교 홈페이지 및 교수학습개발센터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 총학생회공약 관련 논란

# 학교 정책 = 후보자 공약(?!)

## 일부후보,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워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해 학교 측이 시행중인 사업을 특정후보가 학생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학교예산편성과 사업에 대한 정보 출처가 어디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보자와 학교 특정 부서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기호 1번 후보 선거본부는 “대학원생, 교수, 학교 관련 업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했으며 특히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도 달리 학교 측의 예산기획이나 장학, 사업 분야는 각 부서에서도 소수 직원들에게만 정보가 공개되는 분야로 알려져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을 살펴보면 장학관련 공약, 후문 에스컬레이터 설치, 영어기숙사 설치, 교환학생 교류대학 확대 등이다.

장학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사찰에서 기부금을 받아 장학금 신설하고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은 현재 학교측이 사찰에서 받은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자청년지도자 육성 장학’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 학교당국에 따르면, ‘불자청년지도자육성장학금’은 석왕사, 봉은사, 불광사, 진관사, 도선사 등 5개 사찰에서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도선사 장학생은 이미 선발되었고 나머지 사찰 장학도 학생 선발을 진행 중인 정제민이다. 학교 측은 계속 전국의 유명사찰 장학을 확대시켜 장학금을 유치해 나갈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학교가 이미 운영중

인 장학 사업을 학생회가 주도하는 듯한 공약으로 만든 것이다.

또한 중문, 후문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또한 학교예산편성과 사업에 대한 정보 출처가 어디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보자와 학교 특정 부서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후문 에스컬레이터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기로 했으나 신청사건으로 인한 특혜의혹으로 보류되었고, 중구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기획안을 제출하고 중구청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 후문 에스컬레이터는 예산 집행이 확정돼 캠퍼스기획단에서 업체선정 및 조감도 작성 단계에 있다.

### 학교 관련부서 ‘불쾌감’

이에 대해 고기훈(국제통상3) 후보는 “중문, 후문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 학교 측은 시행업체를 선정중이라고만 이야기하며 설치를 미루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 설치 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교측 담당직원은 “중문 비탈길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학교의 독자적인 건설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후문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이 진행중이고 광장 및 쉼터 설치 등 주변 조경사업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 겨울인 2월까지의 공사가 불가능하다”며 “사업을 이끌어 가는 정황을 모른 채 고직원을 업무태만인양 비난하고 후보공약 정책이다. 학교 측은 계속 전국의 유명사찰 장학을 확대시켜 장학금을 유치해 나갈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학교가 이미 운영중

인 장학 사업을 학생회가 주도하는 듯한 공약으로 만든 것이다.

는 국제화 추진단과 오영교 총장이 직접 9, 10월에 영국 및 유럽 지역, 중국, 인도 대학들을 방문해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학생선발을 통해 교환학생 인원 및 교류대학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 역시 이미 학교측이 기획과 준비 과정을 거쳐 총장이 직접 외국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어 추진된 것으로 학생회 공약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같은 공약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엄보람(전 기공) 학생은 “학생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공약이 많다”며 “기숙사설립, 사찰장학, 에스컬레이터 설립은 학교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총학생회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허위 공약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디시인사이드 동국대 갤러리에서 ‘부처님빠들이’란 닉네임의 한 학생은 “후보들의 공약 중 핵심인 사찰 장학과 에스컬레이터 등은 이미 학교에서 결정난 것으로 안다”며 “이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학교 정책에 무임승차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학교가 추진중인 정책을 내세워 학생회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학생자치라는 학생회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자칫 학교가 배후에서 예산과 사업 심의 정보의 고의적 유출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에 신중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학사지원본부의 한 직원은 “학생회 후보라면 학생입장에서 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지, 학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심지어 예산 책정이 끝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 측은 “학교가 계획한 사업을 빨리 시행하도록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역할이며 공약도 그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 학생다운 선거풍토 필요

이같은 논란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학교의 일부 부서가 학생회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9대 총학생회는 신공화관 시공 결정과 정보문화관, 중앙도서관, 학술문화관 1개 층 증축, 외국교수를 초청해 우리학교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동국인터내셔널 섬머스쿨’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학생회 활동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또한 학교 측이 이미 계획과 예산 책정이 완료된 상태이거나 추진해왔던 사안이었다.

2007년도 1학기 총학생회 예산은 약 7백여 만원 정도였다. 물론 초과되는 예산에 대해서 학교 측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을 총학생회가 추진한 것처럼 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 일부부서가 특정 후보에게 구체적인 학교예산편성과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도 학교측에서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가 학생 자치활동에 개입한다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회 선거에 임하는 각 후보 진영도 학생회의 예산범위와 실정에 맞게 공약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평가를 받는 학생다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 한전부터

## 불편고사

○...중간고사 시간, 시험문제는 못 풀고 펜만 물어뜯고 있던 학생이 많았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중간고사 시험시간에 교수대신 조교가 들어와 오타나 의문점이 있는데도 학생들은 확실한 대답을 못 들어 안절부절 못했다고.

시험 당일 강의 참석은 교수 재량에 맡겨졌지만 학생들의 불편을 위해서라도 교수들이 시험시간에 참석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왠 “교수도 출석 체크해야(?!)”

## 채움의 의미

○...우리학교에서 ‘궁녀’가 ‘태백산맥’을 눌러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영화 ‘궁녀’의 티켓배부에는 30분 먼저 기다리던 학생들이 조정래 교수의 강연회에는 열의를 보이지 않아 국문학과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대신 강연회가 채워졌다고.

공짜 영화티켓이 좋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삶의 지혜를 들어 보는 학생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왠 “강연회는 채워졌지만 쓸쓸함은 채워지지 않는다”

## 홀로 화끈한 시간

○...모두가 떠난 밤에도 캠퍼스는 후끈한 열기로 달아올라 있다는데.

알아본즉, 날씨가 추워져 난방기구의 사용이 빈번한데, 정작 많은 동국인들은 난방기구를 소화하지 않은 채 퇴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모든것을 잊아가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퇴실 전 난방기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이에 본교 난방기구들 왠 “날 좀 끄소, 날 좀 끄소, 다 태우고 울지 말고 날 좀 끄소.”



학교를 찾은 유명인 ... 지난 7일과 9일 MBC뉴스데스크 앵커 엄기영(우)과 신경림(국어국문학) 석좌교수가 우리학교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엄기영 앵커는 학생들에게 대중매체에 대한 날카로운 인목을, 신경림 교수는 시가 인간에게 주는 감성의 풍부함을 강조했다. <출> dgupress@dongguk.edu

# ‘로스쿨 유치’ 학내는 이사중

## 만해관 열람실 폐쇄 ... 법학전문 도서관 조성

로스쿨 인가 신청을 앞두고 인가 조건 충족을 위한 학내 공간 재조정이 이뤄진다. 이번엔 법학전문도서관으로 리모델링 되는 공간은 만해관 열람실 1,2,3층이다. 이번 리모델링은 지난 10월 착공했으며 이번 달 30일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측은 만해관 열람실 공사로 부족해진 열람실 보충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문화관 305호 K404에서 K410까지 340여석 규모로 임시열람실을 만들어 오늘(12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내년 2월까지 운영되며, 2월 이후에는 다음 달 계약이 만료되는 문화관 원학전문도서관 일부와 새로 구입하게 될 법학전문도서관 5만 3천 여권이

비치된다. 이에 따라 만해관 2층에 있던 불교대 행정지원실은 명진관 A104, A106, A107로 옮겨진다. 불교대 행정지원실로 대체된 공간에서 진행된 문과대 · 이과대 수업은 만해관 1층 강의실로 옮겨져서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 측은 만해관 열람실 공사로 부족해진 열람실 보충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문화관 305호 K404에서 K410까지 340여석 규모로 임시열람실을 만들어 오늘(12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내년 2월까지 운영되며, 2월 이후에는 다음 달 계약이 만료되는 문화관 원학전문도서관 일부와 새로 구입하게 될 법학전문도서관 5만 3천 여권이

이와 더불어 중앙도서관에 전시실로 이용되고 있던 빈 공간을 70개 정도의 테이블을 보충해 부족한 열람실 공간을 대신할 계획이다. 또 내년 8월 완공 예정인 중앙도서관 1층 증축공사에 따라 증축된 공간에 1,500석 규모의 열람실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와 관련해 캠퍼스 기획단(단장=김홍일 · 건축공과) 측은 “학생들이 공사로 인해 또 피해를 받게 된 점 미안하다”며 “로스쿨 유치가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급하게 이뤄지는 점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 동약로에서

## 취재사절?

지라시 : 본지를 기관지로 매도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말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동약 내 학우라면 누구와 한 약속이던 성실히 지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총학생회 : 총학생회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논리로 왜곡과 편파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지라시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모든 글을 삭제 조치 합니다.

총학생회와 학생자치신문 ‘지라시’와의 논쟁이 한동안 학교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었다. 문제의 발단은 지라시가 총학생회에 인터뷰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시작했다. 지라시는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총학생회 게시판에 총학생회의 입장을 묻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몇 차례 답글을 붙인 후, 지라시의 글을 삭제했다. 지라시측 박성환(법학3) 군은 “학우들에게 항상 열려있어야 할 총학생회에서 총학생회활동에 의문을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학생회 간부는 “지라시를 언론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뿌리 깊은 동약 내 운동권 학생들의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에 대한 정당화 조치였다”고 말했다. 사실 총학생회 측의 이러한 태도는 이번뿐이 아니다. 총학생회는 동대신문 제1447호에 실린 클린동국 캠페인 기사와 관련해 기사가

작게 다루어 졌다며 “앞으로 동대신문에 대한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동대신문이 신정아 사건에 대해 좌담회를 마련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수습책을 묻는 자리에 학생대표 자격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도 거절했었다. 이러한 학내언론에 대한 총학생회 간부의 태도를 보면, 지라시에 대한 태도는 예상이 가능한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다.

총학생회의 답변을 듣고 싶은 사람이 동약의 구성원이라면 그것이 기관지든, 학교신문이든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총학생회의 한 간부는 “동대신문이 총학생회가 인정하지 않는 지라시에 관해 이러한 문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며 “1학년 이면 운동권의 역사에 대해 공부나 하라”고 말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의기구다. 자신들을 지지한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입을 닫고 귀를 막는다면 이는 대의기구로서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 총학생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 2008년 동국은 우리에게 맡겨라

2008 총학생회 선거 후보 등록 결과 40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기호1번 고기훈(국제통상3) · 이순양(기계공4) · 이순양(기계공4), 기호2번 현성은(국문3) · 신동욱(법학3) 조가 압승했다. 이에 각 후보자들을 만나 입후보 이유와 주요공약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기호 1번 정 고기훈(국제통상3) 부 이순양(기계공4)

## “모두가 하나되는 동국 만들 것”



왼쪽 고기훈(정) 오른쪽 이순양(부) 후보

- 선거에 입후보 하게 된 이유는.  
= 단과대 학생회장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보람이 있었다. 또한 이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학생의 참된 역할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기존의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편을 나뉘어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가졌었다. 이러한 학내 구성원의 화합과 학생들의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이끌 수 있는 총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했다.

- 지난 총학생회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올해 일년의 사업을 뒤돌아 봤을 때 이번 총학생회는 비판받아야 할 점이 많다. 물론 동국 시네마 데이, 축제와 같은 문화 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생들의 의견 공론화 장 형성을 하지 못했고 학생들의 의견 창구 역할에도 소홀했다. 학기 초 신정아 사건에 대해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도 거의 없었다. 1만 3천명의 학생을 전부 만날 수는 없지만 각 단과대 회장 그리고 과 대표자들과 의사소통을 늘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현재 총학생회 중심의 비운동권

과 운동권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들로 나뉜 상황에서 들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어 왔다. 비운동권, 운동권으로 나뉘어 아웅다웅 싸우는 학생회가 아니라 그들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총학을 만들겠다. 현 총학생회와 멀리 있었던 단과대에도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어 함께 학생회를 이끌어 가겠다.

- 주요 공약과 실현 방안은.  
= 축제와 같은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편안한 시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학교 장학금을 확대하도록 학교에 건의할 것을 최우선 순위로 정했다.  
올해 학교에서는 전국의 사찰에서 지원받은 기부금을 '사찰장학'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장학금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학교에서 장학금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다.

중요 강의에 대학원생 학습조교를 배정할 수 있는 의견을 학교에 건의하겠다. 이는 일종의 멘토 시스템으로 리포트 첨삭과 맥락을 같이한다. 담당교수가 모든 평가, 첨삭을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우리학교 대학원생들이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클래스를 맡기자는 것이다. 모든 강의에 대학원생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학생들에게 직접 리포트 첨삭, 강의 보충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요청하겠다.

문화 사업으로 장충 체육관에서 이승기 콘서트를 무료로 열고, 작년에 총학이 했던 동국 시네마 데이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학교에서 중문, 후문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 학교에서 가까운 성신여대 근처에 고시원 건물이나 임대 건물을 빌려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

겠다.  
- 학교 측과의 등록금 인상문제 협의 방안은.  
= 지난해 등록금 협상은 등록금 책정이 끝난 2월에 이뤄져 학교측의 일방적인 설명회에 지나지 않았다. 등록금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올해 12월에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 학생주체가 공식적인 원탁대담회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 경영대의 비데 설치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뤄졌다. 선거를 앞두고 두고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올해 초에는 새터, 축제 준비로 바빠 비데 설치가 미뤄졌고 방학동안 여러 업체와의 물밑작업을 통해 이달 초에 이뤄졌다. 선거철에 비데 설치가 이뤄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경영대 학생회장 후보 당시에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공약으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화장실만큼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 어떤 학생회를 만들고 싶은가.  
=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학생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내세운 우리의 공약을 학교와 학생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 학교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공론화 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고 그 의견이 학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순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주요 공약**

1. 사찰장학 확대를 학교측에 건의
2. 중문, 후문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
3. 모든 화장실에 비데 설치
4. 시네마 데이 월 1회 실시
5. 일부 강의의 대학원생 학습조교 배정 및 리포트 첨삭지도 건의
6. 등록금 4회 분할납부 실시 건의

기호 2번 정 현성은(국문3) 부 신동욱(법학3)

## “소통, 동국을 바꾸는 새로운 힘”

- 선거에 입후보 하게 된 이유는.  
= 과 학생회 활동과 문과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난 뒤의 뿌듯함을 느꼈다. 더욱이 총학생회장 입후보를 생각하게 된 것은 문과대 학생회장을 하는 동안 답답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제개편, 신정아 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 현 총학생회의 목소리가 부재했던 점이 아쉬웠다. 총학생회가 학생들과 격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과 함께 하고, 한 목소리를 내며 하나 된 동국대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 선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선거공약의 핵심은 'Talk, Play, Love' 로 평소 자주 쓰이는 단어들로 광고에 등장하기도 했다. 학생회의 기본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소통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또 공약을 행동으로 이행하며 신뢰받고 사랑받는 총학생회가 되자는 의미에서 선거공약의 핵심을 'Talk, Play, Love' 로 했다.

- 선거 공약 중 중점을 두는 부분과 실천방안은.  
=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생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최우선으로 매주 월요일 토스트를 구워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공약을 실행할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볼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학교에 와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해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꿈의 연습술사 공모전'을 기획해 학교의 발전방안에 관련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선정해 합격한 팀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해서는 AOD(Audio On Demand)서비스를 공약으로 정했다. e클래스에 AOD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가장 필요한 전공수업부터 시작해 교양수업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필요할 때마다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지하철 3호선에 학교이미지 광고를 하기 위한 홍보기금 모금운동을 실행할 계획이다. 최근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학교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는데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광고홍보도 이미지 회복의 방법이 있다. 광고내용 또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우리학교 이미지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밖에도 '동국 Zone'을 구축해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은 학교주변의 미용실, 음식점, 대한극장 이용 시 10% 할인 및 혜택이 돌아오게끔 할 것이다. 또한 택배수령 서비스, 실전면접스터디, 동국 Book Festival 등으로 실질적인 문화 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매 학기 초 학생들의 관심사는 등록금문제다. 학교 측과 등록금 인상을 협의 방안은.  
= 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이유에 대해 설명만 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만 한다면 예전의 총학생회처럼 쉽게 타협하지 않겠다.

등록금 문제는 비단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다. 학교 당국과의 논의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과의 연대를 통해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 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가겠다.

더불어 학교 측에 학자금대출 이자를 대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내년 1학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단과대 학생회장 활동을 하면서 3천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으며 연 7%대의 이자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양대, 경희대 등 다른 학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지원방법도 이자 중 70%지원, 6개월 지원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학교와 협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채택할 것이다.



왼쪽 현성은(정) 오른쪽 신동욱(부) 후보

- 본관 점거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 극복 방안은.  
= 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독단적인 행보가 아니다. 학생대표로서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어떤 총학생회를 만들 것인지 각오 한마디.  
= 지금까지 강조해 온 것처럼 소통을 바탕으로 행동할 줄 알고 사랑받는 총학생회가 되겠다. 더불어 총학생회의 임원들을 위한 총학생회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미혜 기자  
lmsionarai@dongguk.edu

**주요 공약**

1. 매주 월요일 아침 토스트 구워 나눠주기
2. '꿈의 연습술사 공모전' 기획
3. 학자금 대출이자 대납요구 서명운동
4. 전공수업 AOD(Audio On Demand)서비스 제공
5. 모금운동을 통한 지하철 3호선 내 학교 이미지 광고
6. 동국 Zone 구축

##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 성공 취업을 위한 2007년 5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7년 5차 '면접스킬 마스터 프로그램'을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목적
  - 유형별, 단계별 면접훈련을 통해 다양한 면접과정의 이해
  - 면접 시뮬레이션과 Role Play를 통해 면접스킬 강화와 자신감 획득
  - 유형별 면접실습을 통한 본인의 능력과약과 효과적 면접 전략 수립

2. 교육내용  
가. 교육형태 : 1일(8시간) 면접스킬 집중교육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구분	차수	일시	인원	비고
2007-2학기	5차	2007. 12. 1(토) 09:00 - 18:00	50명	

다. 교육장소 : 본교 다학관세미나실  
라. 프로그램 및 강사

시간	프로그램	내용	진행 및 강사
08:40~09:00	등록	출석체크 및 교재 배부	취업지원센터
09:00~10:00	면접 특강	면접의 이해 및 면접예비 인터뷰스킬	전문강사
10:00~12:00	유형별 면접실습 I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심사 + 코칭)	
12:00~13:00	점심	상복원 식탁	
13:00~15:00	유형별 면접실습 II (면접 Role play)	면접 시뮬레이션(심사 + 코칭)	인사 담당
15:00~18:00	인사담당실전 모의면접	- 실전면접 + 피드백 - 집단, 토론, 영어, 프리젠테이션 면접	
18:00~18:20	실문조사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취업지원센터

3. 모집대상 및 모집기간  
가. 모집대상 : 3, 4학년 및 기졸업자  
나. 모집기간 : 2007. 11. 15(목) ~ 11. 21(수) \* 선발인원(50명)의 2배수(100명)까지 선착순 접수
4. 신청장소 :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첨 소정양식)  
\* 신청(접수)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선발방법 : 접수순서로 선발예정
7. 선발자 명단 공고 : 2007. 11. 26(일)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8. 기타사항 : 교육비 전액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 ☎2280-3054,3055)로 문의바랍니다.

### 2007 동계 재학생[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동계 재학생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1. 캠프명 : 2007년 동계 재학생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

2. 목적  
○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자신감 및 리더십 함양 교육  
○ 인사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체험을 통한 재학생 취업 성공 및 기본 역량 강화  
○ 교육 참가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 협력관계 구축의 장 마련

3. 모집대상 : 재학생 전학년(인원초과시 3,4학년 우선배정)  
\* 선발인원의 2배수까지 선착순 접수

4. 모집기간 : 2007. 11. 19(월) ~ 11. 27(화)

5. 신청장소 :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6. 제출서류 : HRDP 취업캠프 참가 자기소개서(별첨 소정 양식)  
\* 신청(접수)시 '취업캠프 자기소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선발방법 : 내부기준(자기소개서, 접수순서, 학년 등)에 의거하여 선발예정

8. 선발자 명단 공고 : 2007. 12. 4(화)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9. 캠프(교육) 내용  
가. 교육형태 : 합숙교육(3박4일)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구분	회수	일시	인원	비고
동계방학기간	8기	2007.12.26(수)~12.29(토)	50명	

다. 교육장소 : 삼봉인재개발원(경기도 안성 소재)  
라. 교육주관 : 잡코리아  
마. 일일 주요 프로그램

구분	교육명	주요 교육내용
1일차	직무역량 강화	- 성공적인 자기관리 및 자기경영, - 커뮤니케이션 기법 - 창의력개발, 기획력 향상
2일차	자기관리 및 리더십 강화	- 비전 설정 및 목표수립 - 시간관리 기법 - 셀프 리더십, 팀 리더십
3일차	취업준비 교육	- 국문 이력서 작성 및 컨설팅 - 영문 이력서 작성법, 영어면접기법 - 성공면접 이미지 메이킹 - 면접 Role Play (1:1, 다:1, 면접 시뮬레이션)
4일차	실전 취업 스킬	- 면접 Role Play(토론펬 면접 시뮬레이션) - 면접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성공전략 - 기업 인사담당자 실전 모의면접

10. 기타사항 :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유니폼과 기념품 제공 및 수료증 발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로 문의바람 (문의전화 : 2260-3054~6)

###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저학연에게 진로 및 취업방향을 제시하고 고학연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의 결정 기준을 제공하고자 2학기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전학년
- 접수안내 : 본관 취업지원센터 선착순 접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조은희/교내 3054)
- 모집인원 및 장소 : 횡단 선착순 100명, 다학관(초학단) 세미나실
- 강의 내용 : 업계 전망 및 동향 / 업종의 특징 및 인재상 / 근무환경 / 주요업무내용 및 분위기 / 취업전략(기본요건, 개인역량, 자격요건 등) / 질의응답
- 프로그램 안내 및 행사일시 (오후 5시30분 ~ 8시00분)

회차	일시	세부내용	강사명	소속	비고
6회	11/13	공기업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심규현	한국가스공사 인사팀 과장	
7회	11/20	홍보·마케팅 -직무이해 및 인사전략	김영진	KTF 기업홍보팀 차장	
8회	11/27	<직업탐구> 교사 "경력력을 키워라, 사람학교는 기다린다!"	서병서	배재중학교 교감	동문
9회	12/4	<직업탐구> 컨벤션 기획사 되고 싶다	김태환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 컨벤션본부 팀장	동문
10회	12/11	<직업탐구> 광고계의 별 카피라이터	윤재림	서울예술대학 광고창작과 교수	동문

대학가 리더십 교육의 현주소

# 능동적 리더십 프로그램 위해 학생자치활동과의 연계 필요

## 주입식 교육으로는 역부족 ... '학생자치활동' 리더십 개발에 활용해야



▲ 108리더스 프로그램의 일환인 '캄보디아 해외봉사연수단'의 모습.



▲ 108리더스 학생들이 'Maxwell 프로그램'의 한 강의를 듣고있다.

최근 대학가에 리더, 리더십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학교를 비롯한 숙명여대, 연세대, 한양대 등에서는 다양한 리더십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리더십이 강조되는 이유는 기업의 채용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근면과 성실이 강조되던 산업사회에서 창조와 혁신이 강조되는 정보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한화무역 기획인사팀 한원석 대리는 "많은 취업준비생이 비슷한 곳에서 면접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동적이고 색깔이 없는 사람은 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한화에서는 채용면접에서 능동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최근 기업들의 채용 기준이 능동적 태도를 강조하면서 대학가에서도 학습뿐만 아니라 능동적 태도를 강조하는 리더십 교육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 우리학교 '108리더스'

우리학교는 리더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8리더스'를 진행하고 있다. 취업지원센터가 추진하는 108리더스는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미래와 가치를 창조하는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리더에 대한 기본자질 함양을 우선과제로 하고 있다.

다른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수학점을 채우면 수료하는 방식이 대다수인데 우리학교는 특징이 짙은 두꺼운 학생들을 개인별로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취업지원센터 손재영 센터장은 "우리학교 108리더스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의 리더십 프로그램은 초기단계에 있다. 그만큼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우리 대학은 108리더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리더십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108리더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김길현(컴공3) 군은 "열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리더십 교육을 해주는 강사들은 리더가 아니라 많은 리더를 만나 연구하면서 그들은 비교·판단 한 사람들이다.

본인이 강의를 듣고 깨닫는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다른대학의 리더십 프로그램

우리학교 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대학들의 장점을 짚어보고 우리대학의 리더십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

숙명여대는 작년 '숙명여대 S-리더십'이라는 리더십 브랜드를 선포하고 재학생들의 리더십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해에만 리더십 교육에 1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1학년 학생 전원을 리더십 교양학부에 소속시켜 관련과목의 14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숙명여대 리더십 프로그램은 학교 측의 투자를 바탕으로 졸업생과 재학생을 잇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숙명여대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학교는 일부 학생들에게만 리더십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체학생들에 대한 안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양대는 올해 '한양리더십'이라는 강좌를 신설하고 1학년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양대 리더십센터의 김세훈 연구원은 "1학년 과정은 학교와 사회의 가치를 파악하고 비전 수립, 자신의 인생 로드맵을 그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앞으로 2학년(글로벌리더십), 3학년(시장경제), 4학년(개인적 자질) 과정도 실시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양대는 각 학년에 맞춰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리더십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3.4학년에 맞춰진 우리학교의 리더십프로그램도 저학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세대의 리더십 프로그램은 유형별로 다양화 되어 있다.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프로그램 유형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교과목 연계형 △학생주도형 △국제교류형 △집중교육형 4가지 유형의 특성별로 짜여진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참

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학교 같은 경우 108리더스 이외의 리더십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이다. 더욱 다양한 세부 유형을 통해 학생들이 리더십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이화여대, 서울대, 부산대, 우송대 등에서 리더십 강연회, 강좌 등을 시행하면서 리더십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다.

### 수동적 리더십 교육

하지만 대부분에 대학들의 리더십 프로그램은 주로 강좌나 강연회 등에 한정돼 있다. 이러한 수동적인 교육은 한계가 있다. 리더십이란 조직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해 윤지영(사과대1) 양은 "학생자치기구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리더가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리더십이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학생자치활동과 연계돼야

최근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대학가에서 일반적 현상이 되면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또한 주도적인 활동에서 멀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학생들은 동아리방, 학회실을 떠나 도서관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나 이제 능동과 혁신을 강조하는 리더십이 새로운 기업의 채용기준으로 떠오르면서 학생자치기구 활동의 재발견이 기대된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리더십 프로그램도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리더십을 교육하는 강연회나 강좌를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자치기구 동아리 활동 등을 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포함시킴으로써 능동적 리더를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정동훈 기자  
gid1226@dongguk.edu

대학에 붙어닥친 리더십열풍의 이면을 말한다

# 대학 리더십은 자아실현 추구해야

## 기업과 대학의 리더십에는 차이점 존재

최근 들어 대학들이 다투어 리더십 센터를 설립하고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드디어 리더의 능력과 자질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하여 좋은 바탕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이화여대, 서울대, 부산대, 우송대 등에서 리더십 강연회, 강좌 등을 시행하면서 리더십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계에서 현재 우리사회에 일고 있는 리더십 열풍의 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집단(그것은 국가일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대학일 수도 있다)의 성공과 실패를 지나치게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 않은가? 한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의 리더십은 그 집단 구성원의 팔로십과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시대가 바뀌면 리더십의 특성도 변한다. 왕조시대의 왕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덕목이 민주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능력과 덕목과 같을 리 없다.

또한 동일한 시대라 하더라도 집단이 다르면 리더십의 특성도 달라진다. 군 지휘관의 리더십이 기업 CEO의 리더십과 같을 리 없고, 또한 이들의 리더십이 대학의 리더십과 같을 리 없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보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리더십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은 집단 구성원의 팔로십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권리의식이 없었던 왕조사회에서 민주적 리더십이 나타날 리 없고, 높은 자존심과 굴복하지 않는 영혼으로 뭉친 집단이 독재자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을 빌어 현실의 리더십을 그것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의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다고 본다. 하나는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적 욕구, 안전, 사랑과 소유욕을 기본수단으로 삼는 리더십이다.

이 욕구는 인간의 원초적인 생존본능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이 충족되지 않고는 보다 인간적인 상위목표로 이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충족시켜주겠다는 유혹과 그것을 빼앗겠다는 위협, 그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공포는 고래로 집단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왔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존중과 인지, 완성과 진리에 대한 갈망이다. 또한 자아를 고양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끝없이 이를 자극하는 것을 기본수단으로 삼는 리더십이다.

우리는 이 리더십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을 플라톤의 철인 통치자에서 발견할 수 있다. 플라톤이 그의 공화국에서 말하는 철인 지도자란 대중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무명에서 진리로 이끄는 자이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기업의 리더십과 대학의 리더십 간의 차이 일 수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40년 동안 미국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낸 엘리오프는 후자의 좋은 예가 된다.

미국의 로스쿨제도, 중등교육과정, 그리고 대학입시제도 등이 그의 지도력 하에서 기본 골격이 짜여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의 경영 원리를 대학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위의 권고를 물리친다. 대학의 교수들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 부 권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 법학도서관 설치로 인한 열람실 사용 안내

로스쿨 인가를 위한 법학도서관 설치로 인해 열람실 이용이 중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실 이용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기간 : 2007. 11. 10 (토) - 12. 15 (토)

2. 내용

- 가. 만해관 사용 중지
  - 1) 만해관 1·2·3 열람실 사용 중지
  - 2) 만해관 3층 멀티미디어실 사용 중지
  - 3) 만해관 사물함 사용 중지
- 나. 공사기간 중 열람실 이용
  - 1) 중앙도서관 별관열람실 24시간 개방
  - 2) 중앙도서관 각 자료실 내 열람테이블 임시 증설
  - 3) 학술문화관 4층 임시열람실(7개 강의실) 설치

\* 사물함 보관에 대한 일정 및 내용은 추후 안내드립니다.  
\* 공사 완료 후, 법학도서관 1층 열람실 및 2·3층 자료실·열람실은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 2008년 1월부터 문화관 2층의 열람실 개조공사 및 중앙도서관 한계층 증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12월 실시예정인 로스쿨 관련 현장실사 참가자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로,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공사기간 및 작업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캠퍼스기획단 · 중앙도서관

## 동서사상연구소 2007 추계학술대회 "신인문학의 모색과 전망"

주최 :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주관 : 동국대학교 통합인문학지원단  
일시 : 2007년 11월 16일 (금)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 중앙도서관 AV실

## 11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매체시대에 영화를 감상하고 그 작품과 관련 텍스트를 비교 토론함으로써 영상문학의 이해를 높여 학생들의 독서인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 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11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이란 : 한 가지 테마를 정해 관련 도서를 읽은 후 영화나 DVD를 개별관람하고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2. 일 정
  - 가. 일 시 : 11월 23일(금) 오후2시-4시
  - 나.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 다. 진 행 : 중어중문학과 김양수 교수
  - 라. 선정영화 : 색 계 / 이안 감독 2007년작 마. 관련도서 : 傾城之戀 / 張愛玲 著, 문학과지성사 2005. 동명소설(色,戒) 번역본이 없어 작가의 다른 작품이 선정되었음
  - 바. 정 원 : 11명
3.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순으로 모집하며, 영화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신청자는 관련 도서를 읽지 않아야 하며, 영화감상 후 입장권을 토른 당일 제출해야 합니다. 영화감상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 앙 도 서 관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http://writing.dongguk.edu> 동국관(M동) 4층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 2260-3380 FAX : 2260-3385

## 2007년 2학기 보고서 집중상담프로그램 지원 안내(추가 지원)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고서 작성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지도해 주는 보고서 집중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 제출할 보고서를 대상으로 보고서의 준비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글쓰기센터 연구조교들이 3회에 걸쳐 1대1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지원

가. 지원 대상 : 2007년 2학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졸업논문 및 전공과목과 조별과제물은 제외)  
\* 특히 기말보고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 선발 인원 : 0명(소정의 문화상품권 지급)

### 2. 신청 및 결과 발표

가. 신청 기간 : 2007년 11월 1일~2007년 11월 15일  
나. 신청 방법 : 첨부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heukchun@naver.com](mailto:heukchun@naver.com))로 제출 (신청서는 글쓰기센터 홈페이지(<http://writing.dongguk.edu/>)에서 다운받거나 글쓰기센터 방문하시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결과 발표 : 2007년 11월 19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 11월 20일 오후 4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화(2260-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회 동국 우수 보고서 공모

1. 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2. 대상 : 2007년 1학기 교양 수업 보고서(전공과목, 졸업논문, 외국어로 작성된 보고서 제외)
3. 응모 방법 : 글쓰기센터 방문 직접 제출
4. 응모 마감 : 2007년 11월 1일~2007년 11월 30일
5. 심사 결과 발표 : 2007년 12월 17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6. 상금 : 최우수상 1명 30만원, 우수상 2명 각 20만원, 장려상 5명 각 10만원
7. 문의 :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전화 번호: 2260-3380)  
<http://writing.dongguk.edu>

8. 제출처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동국관 M동 4층)
9. 기타
  - 가. 첨부하는 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해줄 주십시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강좌명, 담당 교수명)
  - 나. 응모 보고서 유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다. 선정된 보고서는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우수 보고서 자료집에 수록됩니다.
  - 라. 파일 제출 시 관련 파일(그림파일 등)은 압축하여 보고서 파일 하나만 올리기 바랍니다.

## 제1기 동국 우수 졸업 논문 지원 사업 공모

1. 지원
  - 가. 지원 대상 : 2007년 2학기가 졸업 학기로, 해당 학기에 등록한 학부생
  - 나. 지원 내용 : 0명 각 20만원
2. 신청
  - 가. 신청 방법 : 다음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지원 공모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 추천서 및 성적증명서
  - 나. 신청 기간 : 2007년 11월 1일~11월 15일
  - 다. 결과 발표 : 2007년 11월 19일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3. 문의 : 홈페이지(<http://writing.dongguk.edu/>)를 참조하거나 글쓰기센터(2260-3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제출처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동국관 M동)

‘재학생과 총장과의 대화’ 지면중계

# “나는 누구와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학교 문제점 · 발전계획 등 다양한 주제로 질의응답 ... 침체된 학내 분위기 쇄신 기대

### 학교비전 및 발전 전략

- 취임 당시 학교의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을 108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약 7개월 동안의 성과는 어떠한가. 앞으로 108프로젝트가 대학원 및 학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김봉수 · 대학원 겸철행정학 석사과정)

= 오영교 총장(이하 총장): 취임 전부터 준비한 108프로젝트는 대학사회의 관행과 관습에서 벗어나 밖에서 본 시각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기획한 프로젝트다. 취임 당시 학교의 상황을 볼 때는 국내 최고 사립대학이라 일컬어지는 학교들과 우리 학교의 격차가 상당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만든 것이다. 이전에 학교가 해오던 시스템으로는 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돼 의사결정시스템부터 학교의 모든 시스템을 바꿔보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을 만들어 학생들과 교수들이 연구하고, 강의하기 좋은 대학으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있다.

비록 지난 신정아 씨 가짜학위사건으로 인해 약 4개월간 시간낭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기획했던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대학원을 비롯한 학교발전을 계속 진행시킬 예정이다.

- 교수회 등 많은 학내단체에서 몇 차례씩 이번 '신정아 사건' 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이 '신정아 사건' 과 관련해 총장 및 이사회 시비를 요구한 것이다. 총장으로서의 입장은 어떠한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해공수님 · 선학3)

= 총장: '신정아 사건'으로 인한 기사 대부분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돼 보도된 경우가 많았다.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학교 측의 행동은 없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듣지 않고, 외부 언론에서 왜곡 보도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해왔다.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총장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나에게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당사자인 총장에게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기타 다른 조치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누구든지 토론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여겠다.

### 학사운영 및 특성화

- 지난 5월 학제개편을 통해 IT, BT, CT 특성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아직 IT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가. (김영환 · 정보통신공2)

= 총장: 학제개편을 위해서 현재는 물론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요도 파악해야 한다. 그것을 바



지난달 31일 재학생과 총장과의 대화 가 상록원 3층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약 15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해 총장과 다양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탕으로 학과를 만들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현재에도 많은 투자를 요하는 IT사업, 현재 수효는 비록 많지 않지만 미래에 확장될 산업으로 BT사업,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CT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학제개편 당시 이를 중점적으로 두고 접근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반대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현재 우리학교의 IT분야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현재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연구한다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들과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겠다.

- 현재 마지막 학기가 끝날 때가 돼서 졸업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4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졸업여부를 확인하고 모자란 학점을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자신의 학사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자신이 들었던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은가. (배완호 · 전자공4)

= 최순열(국어교육) 학사부총장(이하 학사부총장): 현재 정보관리시스템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우선 1차적으로 행정시스템을 정비했으며, 현재는 학생들이 one-stop으로 학사행정제에 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학사행정시스템을 정비중이다. 이는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동시에 이수계획 및 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년 6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는 3학년 2학기 종료 후 각 학과에서 이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 시설 및 교육환경

- 방중부터 시작된 동국관 · 문화관 · 학림관 리모델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소음과 공해로 수업에 방해 받고 있다. 비로 인해

연기된 것을 감안해도 학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김영진 · 회계2)

= 총장: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담당자들과의 회의에서 방학 중에 끝날 수 있다는 계획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이러한 점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미뤄진 점에 대해 학내구성원들에게 미안하다. 계획을 짜임새 있게 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하며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니만큼 학생들은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 강의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 세미나식 수업도 일반강의실에서 진행돼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지난 여름방학 전부터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부분이 진행됐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경우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용 또한 많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우리의 등록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시설투자보다 강의 환경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숙사 설치, 강의실 개선, 칠판교체 등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고도제한으로 인해 공간을 더 이상 넓힐 수 없다면 지하 개발을 제안한다. (김재현 · 전자공1)

= 총장: 강의실 시설문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고려대에는 원형강의실이 있는데 마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토론 및 수업이 진행될 만큼 토론식 수업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빠른 시간 내 화려한 것만 세미나식 수업을 진행하는 데 효율적인 환경으로 바꾸도록 하겠다.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비용을 등록금이 아닌 방법으로 찾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

지하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이미 구상중이었다. 올해 말까지 서울시로부터 수영장과 운동장 부지를 매입해 그곳에 7층정도의 건물과 함께 지하를 개발할 생각이다. 이후, 팔정도의 지하까지 개발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관광지로서의 캠퍼스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캠퍼스 기획단 정경섭 팀장: 지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현재 구상 중인 기획은 해화관과 동국관 사이에 지하 4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약 600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으며, 지하 1층의 경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복지공간으로 사용하려 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다.

### 대학원

- 현재 우리학교의 연구등록금이 등록금의 20%로 타 대학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높은 연구등록금의 대안으로 주차시설 이용과 도서대출 혜택이 있지만 이는 박사과정 수료생이라면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정지원실이 폐쇄됐는데 사전공지가 전혀 되지 않아 많은 대학원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학술관 증축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공간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듣고 싶다. (형진우 · 대학원 국문학 석사과정)

= 총장: 현재 로스쿨인가를 받기 위해 학교 전반적으로 공간 재배치를 하고 있다. 학술관에 증축된 공간은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학사부총장: 우리학교 연구등록비가 현재 80만원으로 타 대학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등록비의 하향을 검토 중이며, 또한 그에 상응하는 연구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단과대 행정지원실에서 대학원의 행정업무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연구의 전문성 및 집중성을 높이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까지 관리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금년 안에 이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 기타

- 얼마 전 과학관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신속히 처리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유독가스 및 폭발성 물질들이 존재하는 실험실은 화재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험실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교내 모든 건물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보안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장이 없으면 건물 출입이 통제돼 안에 있던 학생들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곽동욱 · 대학원 물리학 박사과정)

= 한진수(회계학) 경영부총장: 현재 경영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달 위원회를 열어 이과대를 중심으로 화재 뿐 아니라, 실험실에 쓰이는 독극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했다. 또한, 실험을 진행하는 학생들 보험가입과 정전에 따른 실험실패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부분도 논의했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교체한 이유가 자유로운 출입을 할 수 있게 바꾼 것이었으나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관리하는 부서와 함께 검토하겠다.

- 학교가 진행하려는 사업에 이견이 있을 때 간혹 학생들이 시위를 하곤 한다. 이러한 시위문화에 대한 총장으로서의 생각과 함께 이보다 좋은 의견제시방법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권정환 · 산업시스템공2)

= 총장: 어떤 단계든지 그 단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최종목표를 이루기 위한 생각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견제시 방법에 있어 과거 통제시대에 익숙했던 시위문화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는 대화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 및 현수막을 먼저 내걸곤 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했음에도 통하지 않았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개진 방법은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성숙한 대학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어느 누구와도 자유로운 토론을 할 자세가 돼 있으며, 이러한 토론의 자리도 얼마든지 마련할 것이다. 언제나 열어 두겠다 대화부터 하자.

### 자유 질의

지정 질의응답시간 종료 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질문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자유질의 응답시간이 주어졌다.

이 시간에는 △타 종교 동아리 활동 인정 △교지 편집위원회 교지대의 일방적인 삭제로 인한 논란 △로스쿨유치를 위한 공간 재배치 △'신정아 사건' 과 관련해 학생보상에 대한 문제 △교원총원을 통한 교수 · 학생간의 유대확대 등의 질문이 오고 갔다. 자세한 내용은 학내 미디어포털 동국인(www.donggukin.org)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정리=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 달하나 천강에

## 상식이 통하는 사회



최인숙  
문과대학 철학과 교수

놀이(play, Spiel)가 인간의 본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 칸트,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서 더 나아가 놀이는 인간의 본질 자체라고 주장한 호이징가(Huizinga)와 가다머 이래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놀이는 우리의 삶에서 단지 변방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중 가장 커다란 것은 우리들 자신이 놀이를 인간의 본질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물질 및 감성에 초연한 이성적 사고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본 전통 사회(동양이든 서양이든), 노동(육체노동 및 머니노동)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본 근대 산업사회에서 놀이는 인간의 삶에서 단지 부수적으로 노는 것이거나, 그리고 오늘날은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이익을 창출해내지 않는 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사회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존 및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결과를 창출해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비현실적'인가? 오히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은 바로 놀이가 아닌가. 그리고 놀이는 우리의 삶이 단지 허접스레기들로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축제로, 환희로 모아주게끔 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 아닌가.

선진사회를 이루는 기준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은 상식(common sense)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생각으로서 특별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자 할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어린아이들조차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는 것 등등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가 신에게도 복이 되고 또 이 사회를 바람직하게 이끄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선진사회이다. 선진사회란 거짓말 하지 않는 사회이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이며, 서로 간에 친절하게 대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직, 성실 등의 덕목을 이전 사회 형태에서보다 훨씬 등한히 하기 쉬운 것 같다. 왜냐하면,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정직, 성실 등의 덕목이 외면적으로 쉽사리 드러난다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제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쉽사리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부정직한 것이며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백히 사회적 덕목으로 인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지식정보 사회의 문화는 제대로 정초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들은 다양한 문화적 장르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또 영화, 연극, 연주회, 뮤지컬 등의 축제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을 진정한 놀이, 축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우리학교 논술 길라잡이

## 4. 논술 준비 이렇게 한다 - 평가

- 글 쓰는 순서**
1. 독서
  2. 토론
  3. NIE
  4. 연습
  5. 평가
  6. 나만의 생각
  7. 유의사항

논술의 평가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논술교육의 목표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논술교육의 목표는 그 실체가 오도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의 인식에는 '논술시험 = 논술'이라는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다. 논술이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쓴 글이고, 논술교육의 목표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쓰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따라서 논술 평가는 논리적 사고력과 주장의 설득력, 그것이 글 속에서 제대로 표현되었는가 등을 평가해야 한다.

### 논술평가 관점

그렇다면 논리적 사고력과 주장의 설득력 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여기서 평가의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입시 논술 시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입학처와 공동으로 본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논술 준비 연중기획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번 2학기에는 논술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서 ●토론 ●NIE ●연습 ●평가 ●나만의 생각 ●유의사항

편집자

# 논리적 사고력 증진위해 질적평가 지향해야

한나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선발을 하거나 서열을 매기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의 평가 결과가 다시 피드백 되어 학습자의 논술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논술과정 평가 선행태야

논술 평가하면 대부분 논술 결과물의 평가만을 떠올리는 데, 보다 발전된 논술 능력 함양을 위한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과정 평가가 필요하다.

논술 과정 평가는 논제 파악에 대한 구술 평가, 논거를 위한 자료 평가, 개요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전자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쓴 글이고, 논술교육의 목표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쓰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 대면 첨삭평가가 효과적

논술 결과에 대한 질적 평가는 주로 첨삭지도로 이루어진다. 첨삭지도는 대면 첨삭과 지면 첨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면 첨

삭은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첨삭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평가자는 질문이나 토의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다. 지면 평가는 지금까지 흔하게 사용하는 첨삭지도의 방법이다. 첨삭지도도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채점 기준의 항목을 세우고, 그에 따라 평가한다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필자가 현재 200여명의 학습자들에게 대면 첨삭 평가를 진행한 결과 그 평가의 정밀도나 타당도 문제와는 상관없이 학습자들이 논술문 작성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바꾸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실적 여건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질적 평가를 하는 교사에 대한 믿음과 교사 스스로의 인식 전환에 따라 논술 평가가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논술 평가는 질적 평가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김성희  
계양고등학교 교사



### 독자 사진첩

#### “얹! 머리”

긴장이 흘러 고요한 가운데 상대와 눈이 마주쳤다. 순식간에 '검'은 머리를 치고 '입'은 머리를 외친다.

동이리 '검도부'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학생의 목소리는 어디에

최근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대 학평가 결과라든지, 신정아 사건 의 마지막 불씨를 정리해야 했던 우리 학교 상황을 미루어 본다면 지난호 동대신문에서 1면과 뒷면까지 이러한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었던 점은 화두를 쉽게 정리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신정아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동국대의 정신적인 재정립 필요성과 본연의 기반을 중점으

로 해결점을 언급한 기사는 여타 기사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새로웠다.

둘째로는 적지 않은 실망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학평가 결과에 대해 문제점만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안들을 분류, 분석해 가며 기사화 한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면여유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칼럼' 지면에 학생들이 의견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큰 루트 중의 하나는 동대신문이 아닐까 한다.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이에 따른 소식들, 통환적인 글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쉬웠다.

또한 문화면은 사진영역의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좀 더 알차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물론 문화면의 비주요적인 부분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지만, 그에 따른 부가적인 설명들과 기사의 전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지난호 동대신문은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정보를 보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학생들과 말 그대로 Communicative한 기회 제공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다. 여론을 수렴하고 학교 당국을 위한다는 동대 '언론'의 기본적인 자세가 조금이나마 실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덧붙여 좀 더 다양한 주제로 모든 학생들의 공감대가 높아졌으면 한다.

미민정(사과대 정외2)

# 가을, 문학을 만나는 시간

## 진정한 문인의 길을 찾아 떠난 문예창작학과 문학기행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은 올해도 문학기행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과 마주했다.

문학기행의 목적은 학교를 벗어나 문학의 발상지들을 직접 둘러보고 그 속에서 문학적 영감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한다. 더불어 기행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번 문학기행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다녀왔다. 첫 날은 학생들이 6개의 조를 나누어 5개의 지역(정선, 영월, 동해, 제천, 원주)을 둘러보았으며, 둘째 날은 오전에 오죽헌과 허난설헌 생가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조사 한 다음 낙산학사에 모여 조별 발표 시간을 가졌다.

### 정선, 아리랑에 젖다

정선으로 들어가는 동안 굽이진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높은 고도 때문에 귀가 멍멍해 졌지만, 사방에 보이는 가을로 물든 산은 절경이었다. 작은 마을들과 시골 읍내 몇 개를 거쳐 도착한 정선 5일장은 인파와 생기가 넘치는 곳이었다. 우리는 풍성한 정에서 아리랑을 만날 수 있었다. 장이 선 거리의 길목에 자리 잡은 넓은 공터에서 이미 아리랑 공연

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선 아리랑'은 익숙해 하면서 막상 그 노랫말이나 편(篇)마다 다른 장단들은 생소하게 들렸다. 하지만 가락이나 가사에 깃든 정서는 들으면 들을수록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맛이 있어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아리랑 공연과 장터의 인심을 맞보고 발길을 돌린 곳은 화암동굴이었다. 오랜 시간 버스를 기다려 도착한 그곳은 생각보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동굴 입구로 가는 것은 모노레일을 이용하기로 했다. 모노레일을 타고 바라 본 그곳의 산맥들은 시원스레 뻗은 나무들 사이로 장대

한 기골을 뽐내고 있었다.

더 이상 생활의 터전이 아닌, 관광지 가 된 동굴은, 그 옛날 '노다지'를 기대하며 어둡고 습한 동굴 속에서 희망을 품은 사람들과 그들의 사연을 담은 '아리랑'을 통해 더욱 빛나고 있었다. 그것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봤어도 크게 힘들지 않고 뿌듯했던 까닭이었다.

동굴의 끝이 보일 무렵에 보인 종유석을 또한 멋들어서 제 몸을 키우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동굴을 나오니 깊은 산 속에 이른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우린 숙소를 잡아 놓은 강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 짧았지만 긴 3일

마지막 날, 이효석 문학관을 끝으로 문학기행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짧았지만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3일 동안의 문학기행을 마치고 남은 것은 여러 감정과 장면이 섞인 여운이었다.

장영우 선생님의 말씀처럼 문학을 남긴 배경, 그 자체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시간 폭을 감안하면서 오늘 우리의 경험을 풍성하게 가꾸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 물론 그것이 매년 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일 것이다.

홍승영(예술대 문창2)



▲정선아리랑공연 ▲문예창작학과 단체사진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원 향
월 (11/12)	비지락순두부찌개 (2000) 제육김치볶음덮밥 (2000) 치즈토가스 (2500)	햄구이 (1800) 제육비빔밥 (2000) 순두부찌개 (2500)	불낙전골 (2900) 부추잡채밥 (2500) 간통기 (3500)
화 (11/13)	섭산적구이 (2000) 치즈볶음밥 (2000) 치킨가스 (2500)	돈육메추리알조림(1800) 새싹참치캔비빔밥 (2000) 설렁탕 (2500)	중국식볶음밥&탕수만두 (2900) 시골순대국 (2500) 철관뚜꾸미볶음 (2900)
수 (11/14)	꼬치우동 (2000) 오살불고기 (2000) 수제토가스 (3000)	사골우거지국 (1800) 해물굴소스볶음밥 (2000) 육개장 (2500)	돌솥비빔밥 (2900) 소세지야채볶음덮밥 (2500) 떡배기김치탕 (2900)
목 (11/15)	버섯육개장 (2000) 닭도리탕 (2000) 새우가스 (2500)	비엔나볶음 (1800) 참치김치덮밥 (2000) 안동찜닭 (2500)	원향정식 (2900) 김치찌개 (2500) 떡배기불고기 (3500)
금 (11/16)	북아해장국 (2000) 함박스튜 (2000) 치즈토가스 (2500)	삼치데리야기 (2000) 브로커리치즈볶음밥 (2000) 오징어돌솥밥 (2500)	떡배기고추장불고기 (2900) 치킨키리라이스 (2500) 우거지김치탕 (2900)

## 열공국수 드시고 시험 잘 보셨나요?

“열공국수”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도 다시 찾아 올것을 약속 드립니다.



로스쿨 정원 무엇이 문제인가

로스쿨 정원은 수요자 입장에서 결정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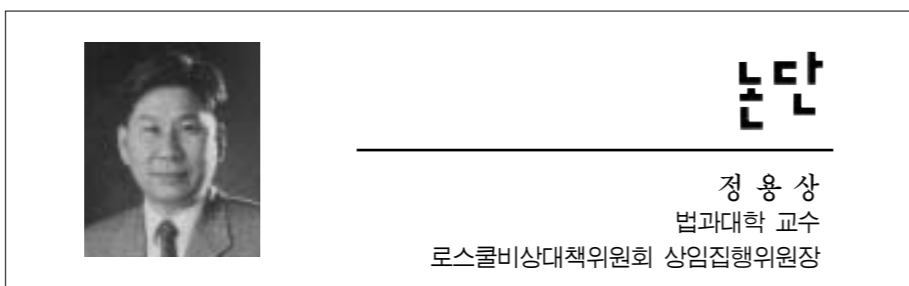
현재의 법학교육의 형태(形勢)화와 경쟁력 있는 법조인 선발방식을 개선하고,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자율과 경쟁의 원리

원래 로스쿨은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인위적인 통제를 해서 안된다. 총정원 통제를 비롯한 각종 결격의 통제가 의한 로스쿨은 더 이상 로스쿨이 아니다. 실사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총정원을 결정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뜻은 팽개치고, 오히려 법조의 이익만 대변하는 소위 "쪼박 로스쿨"인 총정원 2,000명으로, 5개 권역에 인원을 할당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로스쿨 개원을 추진하는 전과정에서 법조인 배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겹겹의 과도한 통제를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무리한 총정원 통제에 있다. 최소한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국제경쟁력 배양을 담보할 수 있는 총정원의 최



논단

정용상  
법대대학 교수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저치가 3,200명이라는 다양한 과학적·통계학적 근거로 증명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국민 법조인 비율을 보면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이고, 매년 3,000명씩 20년간 법조인을 배출해도 OECD국가의 중하위권에 진입하는 데 그친다. 우리의 대국민 법조인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거의 1/10에 불과하다. 현재 법조인 적정인원의 1/10이 법률시장에 감당하고 있다. 나홀로 소송이 80%를 넘는 것이 우리나라 재판의 현실이다. 변호사의 사건수임건수는 선진국평균보다 9.5배나 많다. 판사 1명이 1년에 1,000건의 판결을 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단 한 명의 변호사도 없는 곳이 122개 시·구·군(52%)이며, 단 한 명의 변호사

만 있는 19개를 포함하여 변호사가 1~5명인 시·구·군이 46곳(19.65%)이다.

2,000명은 무늬만 로스쿨

로스쿨 총정원 2,000명은 로스쿨로서의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치이며, 경쟁력 있는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최저기반구축이 불가능한 수치이다. 전혀 합리적 산출근거도 사회적 합의정신도 담겨 있지 않은 오히려 법조관계급의 이익만을 위한 숫자일 뿐이다. 그런 식으로는 사법연수원의 독점에서 극소수대학의 특과점제 제로의 변화일 뿐이므로 근원적인 사법비리의 개혁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무늬만 로스쿨이 아닌 진정한 로스쿨이 아니다. 개혁의 문패만 달고 내용은 반개혁적인

속임수의 수단으로 로스쿨을 악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로스쿨도입이 국민적 합의가 아닌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듯이 권리가 아픈 자연스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법치사회가 아닌가? 로스쿨 제도는 필연적으로 법조인의 대량배출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도는 도입하되 정원을 통제하면, 마치 결혼을 허락하되 불임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가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모두 로스쿨개원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로스쿨, 국민의 로스쿨이다.

우리대학은 건학이념과 교육이념, 그리고 국가 및 사회적 수요에 걸맞는 전문법률가를 배출하는 특화된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법률시장개방으로 법률서비스의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여 세계법률시장에서 국력을 지키고, 국내적으로는 동국 100년 역사의 중흥의 선봉으로 활약하는 법률가,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국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국내 최고의 로스쿨을 설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동국전가족이 로스쿨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사설

신씨 사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신정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변 실장과 신 씨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죄 공범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외압과 관련해 변양균 전 실장이 신정아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한 '추천'이 있었으며 학교측이 가짜학위를 알고도 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학교가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지원 사업이 '특혜'라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발표한 결과는 한 대학의 행정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입히면서 진행된 수사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신 씨의 학위위조 사건은 그녀의 대담한 거짓말로 세간을 뜨겁게 했다. 이후 변 실장과외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우리대학의 국고지원 사업이 신 씨 임용이후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특혜여부를 파헤치려 했다. 2차례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신정아 씨를 교수로 임용하는 대가로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 없는 행정부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감행했음에도 정작 밝혀낸 것은 없다. 동시에 언론은 촌각을 다투며 보도해온 무수한 의혹들에 대해 결과가 발표된 후 입을 다물고 있다. 남아있는 것은 우리학교가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 때문에 입은 피해뿐이다.

그 동안 한 사람의 학위위조로 발생한 문제 때문에 학교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비쳐졌고 국민들의 인신도 언론의 무차별적인 왜곡보도 때문에 나빠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신정아 씨가 학위를 위조해 교수로 임용됐고 변양균 실장은 그를 비호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는 신 씨에게 당하고 언론에게도 당했다. 최근 신 씨는 문화일보의 누드사진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학교도 여태까지 언론의 보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지적하고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보리소

절망을 넘어서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에 가면 부처님의 고행 당시를 묘사한 고행상이 있다. 보기에도 처참한 이 고행상은 부처님이 얼마나 극단적인 수행을 했든가를 보여준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고행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좌절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중도수행(中道修行)'이라는 새로운 방법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었다. 부처님에게 좌절은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사람치고 처음부터 성공가도를 달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발명왕 에디슨은 백열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2,000번이나 실패했다고 한다. 12,000번이 아니라! 보통사람이라면 몇 번 하다가 그만뒀을 일을 그는 절대로 포기 하지 않았다. 성공은 그런 집념의 결과였다. 모든 성공이란 사실은 이렇게 절망과 좌절 위에 쌓아올린 눈물의 금자탑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1년 365일 중에는

언제나 즐겁고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도 오고 눈도 내려 쓸쓸하고 우울해지는 날이 절반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는 흐린 날, 비 오는 날이 필요하다. 만약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쏟아진다면 지구는 사막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슈퍼볼 타이틀을 네 번이나 거머쥔 '척 놀'이라는 감독은 좌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승리를 좋아하는 감독들에게 좌절의 삶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때, 지금 사랑이나 우정, 시험이나 취업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했는가를 생각해볼라. 절망의 등 뒤에는 언제나 희망이 붙어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만나더라도 좌절만 하지 않는다 면, 절망은 인생을 성숙하게 해 줄 보약이 될 것이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봉은, 절망과 좌절의 파도와 싸워 이겨야 비로소 보이는 등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 일이다.

홍사성  
블로그전문 편집위원

메아리

'비판' 과 '토론' 그리고 '용기'

▲"모두가 '예'라고 말할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습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습니다."

몇 년전 선보인 한 금융회사의 광고카피다. 이 금융회사는 이 광고를 통해 무조건적인 '동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신중한 주식투자를 강조했다. 이 광고는 독특한 카피 덕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각종 오락프로그램에서 패러디되기도 했다.

▲지난 8월 경주에서 '서울·경주 전체교수회의'가 열렸다. 이는 오영교 총장 취임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약 370여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그 당시 많은 교수들의 반대가 이어지던 성과평가시스템과 관련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것이었다. 오 총장은 새로 도입할 '성과평가시스템'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교수들의 자유질의응답시간을 가졌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이날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달 31일 '재학생과 총장과의 대화'에서 오 총장은 교수회 등이 자신과의 대화의 자리를 요청하기보다는 성명서부터 발표한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

께 자신은 어느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다는 의사와 함께 토론할 기회를 열마든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학생과 총장과의 대화' 이후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 측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총장과 교수회'의 공개토론회가 개최된다는 기대감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지난 9일 교수회는 내부사정을 들어 공개토론회를 취소했다. 토론의 장을 앞두고 교수 측이 돌연 취소한 일은 처음이 아니다. 동대신문이 지난달 10일 신정아 사건과 관련된 긴급좌담회에 대해서도 참석을 약속하고 좌담 당일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

모두가 '예'라고 할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강조한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 세력의 존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과 이해득실을 염두에 둔 비판은 다르다.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은 당당하고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혼란만 야기하는 '트릭스터'와 구별되는 점이다.

김나리 대학부장  
vik26@dongguk.edu

동국만평

이주현 nitake@dongguk.edu



Table with columns for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윤재웅', '편집장 이윤재'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ongguk University Press.

2008-1학기 전과 시행 안내

- 1. 전과 신청 자격: 전과 재합을 받지 않은 2학기 ~ 5학기 재학생
2. 학년별 전과가능인원, 전형기준, 일시, 장소: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전과 일정: 가. 전과 신청 및 접수: 2007.11.20(화) ~ 11.22(목)
4. 제출서류: 가. 전과(전공변경) 신청원 1부(서식: 학교홈페이지-서울캠퍼스-학사/생활-양식한-전공No.5)
5. 전과 전형 원칙: 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6. 전형료: 전과(전공변경) 전형료: 2만원 (\*본관 학생서비스팀 공지자판기 이용)
7. 기타: 전과관 학생은 전입한 학과(전공)에서 정한 교양과목, 대학(학과) 지정과목, 전공과목, 졸업논문(시험), 외국어시험 등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충족하여야 함
8. 문의: 전입 학과(전공)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

2007년도 동계 중국 중산대 단기어학연수단 파견모집

2007 동계 중국 중산대 단기어학연수단을 다음과 같이 파견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연수기간: 2008. 1. 4 (금) ~ 1. 31 (목), 4주
2. 연수비용: 자기
3. 수업내용: 가. 중국어 강좌: 중국어 듣기, 열독
4. 선발방법: 가. 지원요건
(1) 지원자격: 본교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본과생, 휴학생, 석·박사)
(2) 신청마감일: 공고일 ~ 2007. 11. 26 (월), 오후 5:00, 국제교류팀(본관 3층)
(3) 선착순 선발: 15 ~ 30명
나. 학사해택: 3학년 인정(단, 귀국 후 체류보고서 제출자에 한함)
다. 지원방법: (1) 구비서류: 신청서, 재학(적)증명서 1부
(2) 제출방법: 국제교류팀으로 방문 혹은 이메일
(3) 이메일로 지원 후, 확인요망 (재학증명서는 추후 제출)
라. 제출처: 국제교류팀 (본관 3층, ☎ 2260-3464,3466, monica@dongguk.edu)

국제화추진단 국제교류팀

졸업요건 영어PASS제 모의토익(11월24일) 시행

영어PASS제는 졸업요건으로서, 해당 학생들은 대학/학과의 지정된 영어 점수를 졸업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정규시험(TOEIC, TOEFL, TEPS)이외의 패스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 PASS제 모의 토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접수: 11. 19 (월) ~ 11. 21(수) 24:00까지 (동국대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2. 마감: 11. 19 (월) ~ 11. 21(수) 24:00까지 (계좌이체)
3. 접수증 출력기간: 11. 23 (금) ~ 11. 24(토)
4. 취소 및 응시료 환불할 수 없습니다.
5. 방법: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재학생서비스 my page - 외국어PASS제 - 영어패스시험 신청 - 응시료 입금 - 접수증 출력
6. 시험: 2007. 11. 24(토) 10:00~12:30 해화관 2층 강의실
7. 대상: 영어PASS제 미취득자 및 일반재학생
8. 응시료: 5,000원
9. 마감일: 2007. 11. 21 (수) 24:00까지 (미입금자 접수 취소됨)
10. 입금액: 신청은행 140-007-481766 (예금주: 동국대학교)
11. 주의사항: 가. 입금이감일까지 반드시 본인이름으로 응시료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해화관 1층, 2260-3468, 3470)
13. 시험 주의사항: 가. 9시 30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0:00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14. 다음 모의토익 시험일정 안내 - 12월 22일(토)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중등교사 임용시험 대비 프로그램 종합 안내

중등교사 임용시험(2007. 12. 2)에 대비하여 사범대학·교육대학원·임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중등교사 임용시험 대비 '교육학 임용모의고사(2~3차)'
가. 과목: 교육학
나. 대상자: 사범계, 비사범계, 교육대학원생
다. 차수별 세부현황
2. 중등교사 임용시험 대비 '초등임용고사 문제 풀이 및 교육학 특강'
가. 내용: - 2007. 11. 18일 실시되는 초등 임용고사(교육학 출제범위 예측) 문제풀이
- 2차 교육학 모의고사(11. 19일 실시)
- 기타 교육학 관련 특강
나. 대상자: 사범계, 비사범계, 교육대학원생
다. 일시 및 장소: 2007. 11. 26(화), 18:00~20:00, 본관 중앙관
라. 특강자: 구형희 교시학원 구형희 교수
마.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3. 중등교사 임용시험 대비 '논술 특강'
가. 내용: 임용 2차 시험과 관련한 글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특강
나. 대상자: 사범계, 비사범계, 교육대학원생
다. 일시 및 장소: 2007. 11. 26(화), 18:00~20:00, 학림관 소강당
라. 특강자: 육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승용 겸임교수
마.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4. 기타 프로그램(추후 공지)
가. 중등교사 임용시험 대비 면접 특강 예정
나. 마이크로티칭(수업진행 방법 촬영 및 분석) 프로그램 예정
5. 기타: 가. 각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요망
나. 궁금한 사항은 사범대학·교육대학원 학사운영실(2260-3107, 3112, 3122)로 문의 요망

사범대학·교육대학원·임용지원센터



남산을 다시보다

# 낙엽내음 가득한 목멱에서 찾은 가을

'남산'은 조선시대에는 마른날에도 나뭇잎을 신고 다녀 팔각 발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가난한 선비들을 품었다. 6·25를 전후해서는 해방촌이라 불리기도 하며 월남해 집단으로 거주하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했다. 그런 남산이 지금은 지친 도시인을 품는 도심 속 휴식처가 돼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를 감싸고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기도 하다. '남산 코끼리'라는 말이 있듯, 가까이 있지만 학생들은 무심히도 남산을 대했다. 우리도 가을을 맞아 넘쳐흐르는 남산의 매력을 오롯이 느껴보는 것이 어떨까. 오늘은 그를 찾아가 보자.

### 시작하기 - 상록원 옆 남산길

목멱산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는지. 목멱대동제, 목멱가요제 등에서 보듯 학내에서 종종 쓰이는 이 말은 남산의 조선시대 이전의 명칭이다. 우리가 얼마나 남산과 가까이 있었는지 새삼 느끼게 하는 단어다. 또 그를 느끼게 하는 장소가 있다. 바로 남산길이다.

이는 상록원 식당 입구 옆에 있는 주차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무성한 나무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험한 계단이라고 지레 겁먹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 길을 계속 따라 나가 보자. 코끝을 상쾌하게 하는 나뭇잎 냄새를 맡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남산과의 만남이 시작된다.

### 추천코스 1 - 점심 먹고 뭉치 즐거운 산책길

올해 10월 남산에는 오래 걸어도 편점에 무리가 될 가는 우레탄이 깔린 조깅트랙이 생겼다. 학교에서 남산길로 올라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이 길이다. 우레탄 조깅트랙은 마지막 포장 단계에서 호두껍질 가루를 뿌려 비가와도 미끄럽지 않다고 하니 비오는 날도 걱정이 없다.

여기서 300m쯤 걸다보면 N서울타워로 가는 계단을 만나게 된다. 계단을 오르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타워로 가는 길, 하나는 조깅트랙이 시작되는 길이다. 조깅트랙이 시작되는

방향으로 꺾어 내려가면 나뭇잎의 단풍이 머리칼에 닿아 물들듯 풍성하게 늘어져있어 경치를 바라보며 이야기나누기가 안성맞춤이다. 남산에 처음 왔다는 신다운(경제2) 양은 "산책로가 굉장히 좋다"며 "위에서 내려다 본 학교도 새롭게 느껴지고 경치도 좋아 자주 산책하러 한다"고 말했다.

학교로 돌아오기까지 약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라 점심식사 후에 틈을 내어 걷기 좋다. 목멱골에 위치한 학교를 심한 이용해 심신을 단련시켜보는 것은 어떨지.

### 추천코스 2 - 케이블카 타고 눈이 즐거운 소풍길

국내에 설치된 케이블카 중 최고점은 누구일까? 정답은 바로 1962년 개통해 45년간 고집스럽게 외줄을 땀다는 '남산 케이블카'. 강의가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조깅트랙을 따라 걸어보자. 한옥마을, 명동 등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30분 정도 걸어 내려가다 바깥으로 나가는 계단으로 가면 남산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건물이 있다.

두 번째 계단이 건물과는 더 가깝지만 도로를 건널 길이 없다. 꼭 첫 번째 계단에서 내려가는 것을 잊지 말자. 케이블카 승강장 주위에는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이 골목은 돈가스집이 많아 유명하다. 케이블카를 타기 전 '남산돈가스'를 맛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케이블카 이용가격은 현재 편도 5,500원, 왕복 7,000원이지만 생각보다 케이블카 타는 시간은 짧다. 하지만 외출에 의지해 스티를 느끼며 익숙한 서울 풍경을 내려다 보는 것도 평소와 반전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남산 정상에 도착하면 남산의 상징이자 서울의 가장 높은 곳, N서울타워가 기다리고 있다. 사실 N서울타워는 1969년 TV와 라디오 방송을 수도권에 송출하기 위해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종합 전파탑이다. 항상 예쁜 조명을 받는 관광지인줄만 알았는데 현재도 전국 가청인구의 48%가량이 N서울타워의 전파탑을 이용해 방송을 시청한다고.

팔각정에서부터 타워 옆까지 연결돼 있는 '하늘길'을 따라가

면 탁 트인 서울 풍경을 내려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서있기는 어려울 터, 이럴 땐 N서울타워의 지하 1층 로비로 들어가 보자. 따뜻한 공간에서 각종 영양물을 감상 할 수 있고 푸레쥬르도 운영한다. 간단하게 간식을 먹으며 바라보는 야경은 타워안의 비싼 음식을 먹으며 바라보는 야경 못지않게 좋다.

### 추천코스 3 - 답소 나누며 걷기 즐거운 이야기길

남산의 길은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길이 잘 닦여있어 산책하거나 조깅하기에 좋다. 대부분의 산에서 부부나 가족, 친구들끼리 걷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남산에서는 더욱 특별한 모습을 발견 할 수 있다. 그것은 편안하게 산책하는 시각장애인들이다. 1991년 자동차 출입이 통제돼 안전하고 조용해져 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졌다고 한다.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아들, 시각장애인 부부가 장애물 걱정 없이 여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걷는 것을 바라보면 산책로의 단풍만큼이나 마음을 따스하게 한다.

훈훈한 풍경을 지나 앞의 두 코스와 반대방향으로 걸어 올라가다 보면 조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 할 것이다. 이 호젓한 산책길을 걸으면 소월길로 내려가는 방향에 남산 야의 식물원이 위치해 있다.

남산 야의 식물원은 서울지방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 269종이 심겨져 있고 무궁화원, 유실수원, 약용식물원, 식용식물원, 명굴식물원, 희귀식물원 등 1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남산 식물원과 달리 야외에 조성된 식물원이라 인공호수도 조성되어 있고, 새로운 종류의 식물이 나올 때마다 꽃잎이 붙어있다. 보고 느낄 것이 많아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조용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많아 캠퍼스 커플이 데이트하기 알맞으니 한번 꼭 다녀와 보기를. 식물원을 구경하고 나면 한남동이나 이태원이 가까우니 산을 내려가 맛집을 찾아 음식을 즐기는 것도 하루의 좋은 마무리가 될 것이다.

문서영 기자  
syoo@dongguk.edu  
사진 = <훈>



남산 산책로 안내



▲ 남산 케이블카와 서울시 풍경



▲ 상록원 옆 남산길. 남산 산책길과 연결되어 있다.



▲ N서울타워 앞에서 낙엽으로 장난치는 아이들

# 무한 신념

또다른 배움을 준비하려는 당신의 더 새롭고 더 큰 비전을 위한 신념 - 동국대학교가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무한동력 무한동국**

뜨거운 열정과 무한한 에너지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동국대학교

2007.11.6 동국관 L202 PM10:15

## 2008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명	학과명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MBA (주간/야간)	General MBA, CO-MBA(문화경영)	11.19(월) ~ 27(화)	12.1(토)
불교 (야간)	불교학과, 불교문화콘텐츠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생사의례학과	11.5(월) ~ 16(금)	11.23(금)
행정 (야간)	행정학과, 안보·북한학과, 공인행정학과, 복지행정학과	11.5(월) ~ 16(금)	11.24(서울), 27(계룡대)
교육 (야간)	교육학과, 교과교육학과	11.5(월) ~ 16(금)	11.24(토)
언론정보 (야간)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인쇄출판학과	11.5(월) ~ 16(금)	11.17(토)
문화예술 (야간)	문예창작학과, 공연영상예술학과, 불교예술문화학과, 예술경영, 예술치료	11.5(월) ~ 16(금)	11.24(토)
국제정보 (야간)	정보보호학과, 영어통·번역학과, IT-Business학과	11.5(월) ~ 16(금)	11.17(토)
불교문화 (경주/야간)	불교학과, 불교예술학과, 정례문화학과, 불교상담학과, 다도·사찰음식학과(신설)	11.12(월) ~ 22(목)	11.24(토)
사회과학 (경주/야간)	경영학과, 국제관계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체육학과	11.12(월) ~ 23(금)	11.24(토)

자세한 사항은 본고 홈페이지(www.dongguk.edu) 참고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